

하루를 시작하며



조미영 여행작가

새해를 맞으며 누구든 한번쯤 다짐을 할 것이다. 올 한해의 마음가짐이나 각오 등. 학생은 성적이 잘 나오기를, 실업자는 취직이 되기를, 사업자는 매출이 좋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그리고 12달이 흘러 우리 삶은 평가된다. 학생은 성적의 상중하로 실업자는 취직여부로 사업자는 매출지표로 어느덧 등급 지워진다. 상대평가의 세상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선 웅을 써야한다. 그 과정에서 점점 사 랍은 없고 결과만 남는다. 결국 온갖 부당 행위도 마다 않는다. 지난 한해 술한 부정시험, 취업정책, 사업 비리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들이 뉴스를 장식한 이유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른들이 만들어낸 그릇된 가치관으로 청소년들이 점점 비틀어 지고 있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따돌림이 만연하다. 그러나 인성을 바로잡을 기회는 없다. 성적이라는 만능지표에 의해 깔아뭉개져 버린다. 그러나 다행히 사회 곳곳엔 정화 작용을 하는 장치들이 숨어있다. 그것은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 된다. 지난 연말 우연히 본 TV 연말 시상식에서 배우 강하늘의 수상소감은 인상적이었다. 대부분의 배우들이 한결같이 “좋은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로 마무리 짓는 것과는 달리 “좋은 배우이기 전에 좋은 사람부터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 우리

에게 필요한 것은 뛰어난 능력 이전에 좋은 사람이다. 지난 한해 많은 이들의 가슴을 파듯하게 했던 드라마는 단연코 ‘동백꽃 필 무렵’일 것이다. 강하늘은 이 드라마에서 순박하고 정의로운 시골 순경 역을 맡았다. 등장인물 대부분은 소시민이었다. 미혼모, 시장상인, 다방 종업원 등 내세울 것 없는 그저 그런 인생들이다. 화려한 볼거리도 없고, 자극적인 막장드라마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청자를 붙들어 땀던 이유는 뭘까? 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 안에는 된장냄새 풀풀 나는 사람다움이 있었다. 사기치고 배신하고 이용하는 대신 아주 상식적인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는 정의와 배려를 보여줬다. 비상식적인 세상 탓인지 TV 속의 지극히 상식적인 모습에 도리어 위안과 대리만족을 느끼게 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용

의와 웅벤져스(군경에 처한 이웃을 도와 합심하는 동네사람들)들이 있다. 대단한 학력도 재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어렵고, 불우한 이웃을 돕고 살피며 불의에 맞서 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분위기는 그런 이들을 소중히 생각지 않는다. 묵묵히 고향을 지키고 굶은일을 하는 이들 대신 어찌다 한번 삐죽 얼굴 내미는 정치인, 사회 지도층에 고개를 숙인다. 그러나 세상은 소수의 엘리트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정의로운 소시민들이 모여 큰 물결을 이룰 때 더 이로운 세상이 된다는 걸 역사적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다. 이제 우리도 누군가의 용의와 웅벤져스가 되어보자. 그러기위해선 올 한해의 다짐은 뛰어난 능력이 아닌 ‘좋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라는 물음에 “네!”라는 대답이 크게 울리는 사회가 되길 바래본다.

사설

녹록지 않던 농산물에 날아든 희소식

새해들어 모처럼 훈훈한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본격 출하되는 양배추와 당근 등 도내 월동채소들이 좋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는 거의 모든 농산물 가격이 폭락하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터여서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좀처럼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던 감귤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기대가 됩니다.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서울농수산물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양배추(8kg 기준)의 도매가격은 1만3380원으로 전월평균 1만120원보다 32.1% 올랐습니다. 지난해 1월초(4160원)에 비해 22.2%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최근 큰 오름세를 타고 있습니다. 당근(20kg 기준) 도매가격도 이날 4만2650원에 거래되면서 고공행진 중입니다. 전년 동월 평균 2만4460원에 비해 도매가격은 74.4% 상승했습니다. 쪽파(10kg 기준) 도매가격 역시 소

폭이던 선전하고 있습니다. 감귤(10kg 기준) 도매가격도 연말부터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세를 탔습니다. 가격은 1만1640원으로 전월(9180원)의 26.7%, 지난해 평균가격(9070원)의 28.3% 가량 각각 뛰었습니다. 반면 하우스감귤은 여전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전반적으로 감귤농가의 시름은 깊습니다. 물론 월동채소의 도매가격만 좋은 것이 아닙니다. 도내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거래되는 소매가격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설 대목까지 좋은 가격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때문에 월동채소와 감귤 가격이 오르다고 품질관리를 소홀히 해선 안됩니다. 노지감귤이 고전한 원인으로 다른게 아닙니다. 저품질의 극조생 감귤이 마구 유통되면서 소비자를 실망시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청정제주 고품질 농산물을 유통시킬 수 있도록 무엇보다 생산자부터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읍면동장 추천제 제대로 정착이 중요하다

제주지역도 주민이 직접 읍면동장을 뽑는 시대가 됐습니다. 제주 시 이도2동장과 서귀포시 대정읍장이 주민 추천으로 처음 선출됐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읍면동장 추천제는 5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거쳐 주민추천위원회에서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주민들이 대표가 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에 나가는 취지에서입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입니다. 지방분권의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제주 특별자치도로서는 뒤늦은 감이 있더라도 하는 것은 시행취지와 효과에 방분권이니 하면서도 선점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한 아쉬움이 큼니다. 그럼에도 이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행정시장의 임용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줬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서도 직접 일선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늘게 됩니다. 풀뿌리 주민자치 구현에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희망사항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뽑은 읍면동장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일할 여건과 환경은 만들어주지 않고 기존의 관행을 답습한다면 아무리 주민추천제로 선출됐을지라도 허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부자공과 역효과만 초래할 뿐입니다. 게다가 읍면동장 추천제의 문호도 적극 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5급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행취지와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행은 지역에 변화와 혁신, 활기를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지만 민간의 다양한 경력자까지 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개방형 공모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관행과 연공서열에 젖은 공직사회도 변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뉴스-in

제주도, 카지노 심의위원회 구성 착수

카지노 영향평가 주목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대형 카지노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카지노의 사회적 영향평가를 시행하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나서 주목. 도는 카지노 영향평가 실시 방안 포함한 ‘카지노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이 지난해 12월 도의회를 통과해 최근 심 의위원 50명을 구성하는데 착수. 드림타워 복합리조트에 카지노 이전이 신청되면 첫 카지노 영향 평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심의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조상윤기자

남기지 않으면 업소도장 날인으로 적정 횟수(10회) 도달시 제주사랑 상품권(1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시 관계자는 “쿠폰도장 날발 우려가 있어 영업주 대상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위반시 상수도 감면액 환수 조치 등을 취하며 이용객 제주사랑상품권 지급 횟수 제한을 추진하겠다”고 점언. 고대로기자

제주사랑 클린쿠폰제 실시

○...제주시가 올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제주사랑 클린쿠폰제’를 시행하기로 해 눈길. 제주사랑 클린쿠폰제는 음식점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쿠폰으로 클린쿠폰제 실천 업소에서 잔반을

고3 선거 교육방안 ‘고심’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오는 4월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일부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선거 교육 방안 마련에 고심. 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4월 15일 총선 기준 투표권을 얻는 만 18세(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도 내 고3 학생은 1700여명으로 추정.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선거교육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관련 계획을 구체화하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 김지은기자

열린마당

책의 힘으로 더 큰 제주를 키운다



김철용 우당도서관장

책으로 시작하는 희망찬 겨자년이 밝았다. 2020년은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책 읽는 도시, 제주’로 우뚝 서는 한 해 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공적 개최 ▷대한민국 독서대전과 연계한 ‘책 읽는 도시, 제주’ 추진 ▷시민 지적·문화적 욕구를 채워주는 장서확충 및 제공 ▷시민 결의로 찾아가는 책 서비스 확대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 주는 도서관 ▷농·어촌 도서관 생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사업에 공모해 최종 개최지로 제주시가 선

정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에 제주 시에서는 오는 3월 ‘책 읽는 제주도’ 선포를 시작으로 도서, 출판, 서점, 도서관 등 독서관련 단체와의 협력과 지역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주민 참여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한다. 또한 독서대전기간(9월 4일~6일)에는 신산공원 일원에서 전국 300여개 독서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라에서 부는 독서바람, 전국을 잇다’라는 주제로 개·폐막식, 학술·토론, 전시·체험, 강연 등과 제주 색으로 가득 채워지는 제주책관, 동네책방 투어, 시민독서토론회 한마당 등 전 국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밖에도 책으로 가득한 섬 제주를 만들기 위해 희망도서, 전문도서, 어린이도서, 전자자료, 제주문화 등 특화자료 2만 여권을 구입, 시민 욕구를 충족시키고 기적의 도서관과 조천읍 도서관도 지역 특색 사업을 펼친다. 새해에는 ‘책의 힘으로 더 큰 제주’를 키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책의 도시, 제주’ 모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

※ ‘오피니언’ 편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濟州夫氏大宗會 제15대~19대 會長을 歷任하신 本會 夫昌玉 顧問(향년 89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6일 23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茲以 訃告합니다. 일 포 : 2020년 1월 8일(수요일) 발인일시 및 장례미사 : 2020년 1월 9일(목) 오전 10시 발인장소 : 광양성당 (제주시 동광로5길 19-18) 장 지 : 양지공원 → 국립현충원

부 고 부동혁(前 중등교장) 아버지 제주부공 항욱(국가유공자, 해병대 4기, 요이킴, 향년 89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6일 23시 2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 2020년 1월 8일(수) 발인 및 장례미사 2020년 1월 9일(목) 오전 10시 발인장소: 광양성당(제주시 동광로5길 19-18) 장 지: 양지공원 → 국립 현충원

부 고 김성희(성음농차마을 부장) 어머니 인동장씨 옥동(향년 95세)께서 서기 2020년 1월 6일 21시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0년 1월 8일(수) 발인일시: 2020년 1월 9일(목) 오전 7시 40분 발인장소: 중앙병원 (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해안동 가족묘지

감사의 말씀 이번 저희 어머니 여산송씨 순자(향년 76세) 상사가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 올립니다. 2020년 1월 8일 배우자 현영배 아들 현상준 현상익 며느리 오승미 진선혜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석주개발 712-3644, 782-3644 010-4690-3636 전기차 사고 팝니다. evworld.kr (주)전기자동차 제주시 일주서로 7714(도두일동) 1544-8236